

구례300리 벚꽃축제 초대합니다

아침을 열며

정연권

구례군도시재생지원 센터장



구례는 꽃 세상이다. 어디를 가도 꽃 천지요, 꽃길이다. 복수초를 발화점으로 노루귀, 바람꽃 등 야생화가 허허한 숲에 웅단을 깔았다. 봄꽃 압권은 매화, 산수유, 벚꽃 등이다. 잎도 없이 꽃 물결 장관이 신묘하다. 꽃이 피고 잎이 나오는 '선화후엽형(先花後葉形)' 나무들은 잎 공장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꽃을 피우는 무모한 행동을 한다. 아니다. 치밀하게 설계된 생존전략으로 잎이 없어 꽃가루가 멀리 날아가 번식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꽃눈은 일조와 온도에 따라 꽃을 피우는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 모니터링 한다. 조건이 충족되면 전년에 만들어 둔 양분과 에너지를 쏟아부어 꽃을 피운다. 그렇다. 꽃은 때와 조건이 맞아 찬란한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인고의 시간을 견내한 덕분인지 꽃송이가 많고 화사하며 우아한 꽃잎으로 보는 이로 하여금 들뜨게 한다.

산수유가 만개하고, 화엄사 흥매화도 피기 시작하니 이제 벚꽃 필 시기가 언제일지 관심이다. 올해 확대해 열리는 '구례300리 벚꽃축제'가 오는 31일부터 4월2일까지 열린다. 구례군의 벚나

무는 1만8000그루로 129km에 이른다. 적관법으로 환산하면 300리 정도로 국내 최대 규모다. 장년기 접어들어 벚나무 수형이 수려하고 섬진강과 서서천 풍광이 어울려 수채화를 연출한다. 벚나무 가지가 중심을 닦으려는 듯 늘어져 있다. 꽃봉오리가 미세으로 붕긋붕긋 부풀어 올라 개화가 임박했음을 알려주고 있다.

벚꽃은 온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최고기온의 변화를 보면 개화 시기를 추정할 수 있다. 일본 기상청에서 조사한 '벚꽃 600도 개화 법칙'이다. 당해연도 2월1일부터 일별 최고온도 누적이 600도가 되면 벚꽃이 핀다. 지난해 구례군 농업기술센터 기상관측자료를 합산해보니 3월25일에 608도가 돼 꽃이 피었다. 올해는 언제 필까. 600도 법칙은 올해도 맞을지 기다려진다. 기후변화에 따라 시기가 빨라지고 있다.

벚꽃은 화사함으로 사랑받는다. 어떤 이는 일본 꽃이라며 없애자고 주장한다. 맞다. 왕벚꽃은 일본 국화다. 일제강점기 거리마다 강제로 심어 왕벚꽃 삼천리 강산이 됐다. 당연히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 돼 광복 후 많이 잘려나갔다.

1962년 박만규·부종휴 박사가 제주도에서 왕벚나무 자생지를 발견했다. 2001년 산림청 조경진 박사팀이 DNA 분석으로 일본 왕벚나무 원산지가 제주도 한라산임을 밝혀내 논란은 사그라졌다.

구례의 벚나무 역시 역사와 유서가 깊

다. 묵묵히 서 있는 벚나무에서 세월의 흔적을 발견한다. 벚나무와 사람의 역사를 본다. 벚나무 사이를 오갔던 사람들의 사연이 잔가지에 켜켜이 쌓여 있다. 화엄사 지장암에 천연기념물 제38호 '울벚나무'가 있다. 병자호란 후 인조의 복별 정책에 따라 벽암선사가 심었다고 하니 380년 정도 됐다.

'산벚나무'도 많다. 팔만대장경 경판 64%가 산벚나무로 제작됐다. 재질이 균일하고 무리지도 단단하지도 않아 글자를 새기기 쉬웠다고 한다. 대장경을 경남 남해군에서 제작했으니 지리산 산벚나무가 별채돼 섬진강 뗏목으로 운반하여 만들었을 것으로 추론된다.

꽃에서 세상을 본다. 꽃으로 사람 마음을 읽는다. 꽃을 보면 즐겁고 기분이 좋다. 꽃을 보면 내가 좋은 것이지 꽃이 좋은 건 아니다. 꽃은 국적이 없다. 나쁜 꽃도 없다. 사람들의 편견이요, 갈라치기에 지나지 않는다. 자연의 순리에 따라 피고 질 뿐이다. 이제는 꽃 자체를 사랑하고 즐겨야 한다.

벚꽃을 보면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보라. 구례300리 벚꽃축제를 찾아 섬진강 따라 피어난 꽃을 보며 편견은 버리시라. 벚꽃의 꽃말은 '아름다운 정신', '삶의 아름다움'이다. 꽃 한 송이 이상의 신비는 없다. 신비를 오롯이 접하는 시간은 행복하고 치유돼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진다. 따뜻한 사연을 모아 서로 돕고 사랑하는 '사람꽃'을 피워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보자.

社說

첨단 국가산단, 변화 위한 준비 철저해야

광주 미래차·고흥 우주발사체

광주시가 미래차 국가산단 신규 유치에 성공했다. 고흥에는 우주발사체 단지가 들어선다. 자동차는 이제 내연기관에서 전기와 수소, 자율주행차가 중심인 미래차로 대전환을 시작했다. 우주발사체산업도 세계를 선도할 미래 먹거리로 손색이 없다.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반도체 국가산단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은 아쉽지만 광주시와 전남도가 주력인 인공지능(AI)과 모빌리티 산업, 우주발사체 조립의 선도 지역으로 첫 걸음을 내디딘 것은 환영할 일이다. 15일 국토교통부 등이 최종 후보지로 지정한 미래차 국가산단은 광주 광산구 삼도동 빛그린국가산단 인근에 330만㎡ 규모로 조성된다. 이곳에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광주시가 계획한 미래차 산업이 집적된다면 광주는 사양길에 들어선 내연기관 차산업을 대체할 대한민국 제1의 미래차 산업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다. 고흥 봉래면 외나로도에 조성될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또한 전남을 우주발사체 선도 도시로 이끌 것으

로 기대된다. 미국과 독일 등 자동차 선진국은 이미 미래차를 두고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앞세워 전기차와 배터리 공장에 막대한 보조금을 쏟는 것도 미래차가 갖는 성장가능성 때문이다. 내연기관차 판매중지를 공식 발표한 국가도 독일, 중국, 일본, 영국, 노르웨이 등 11개 국가에 이른다. 공공을 넘어 민간차원의 우주 경쟁이 활성화되는 상황에서 고흥에 국가 우주개발 인프라가 집적된다는 것도 바람직하다. 정부는 신규 지정된 첨단 산단이 적기에 개발될 수 있도록 신속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첨단 산업단지 지정을 시작으로 전통산업에서 벗어난 미래산업 인프라가 조성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미래차와 미래 성장동력인 우주개발을 위한 핵심기술도 준비해야 한다. 광주는 완성차 업체 2곳과 자동차 부품기업이 568개에 이른다. 우주항공과 관련된 고흥의 잠재력도 엄청나다. 첨단 산업 시대, 광주의 미래차와 고흥의 우주산업은 광주와 전남을 변화시킬 절호의 기회다.

불통·독주 대통령 리더십 언제까지...

제3자 변제·근로시간 개편 등

오늘부터 이틀간 일본 도쿄를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에 나선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가진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15일 보도)에서 윤 대통령은 논란이 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안'이 자신의 생각이었음을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내가 정치에 발을 들여놓기 전부터 강제징용 해결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제3자 변제안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했다. 내가 취임한 이후로 이 부분을 (대통령실 국가) 안보실과 외교부에서 진행해 왔다"고 말했다. 이는 피해 당사자들이 거부하고 야당이 '굴욕외교'라고 비판하는 정부의 강제 징용 해법이 처음부터 대통령의 중대로 밀어붙인 결과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다.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 및 전문가 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 듣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힌 것이 무색해진 순간이다. 윤 대통령은 한일 외교 현안 뿐만 아니라 자신의 노동공

약 1호 처리도 독주와 불통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 6일 현행 주 52시간제를 대대적으로 개편, '일이 많을 때는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폭 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제도 개편 방안을 내놓았다. 한데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지난 14일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엠제트(MZ) 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것'을 지시했다. 노동시간 제도 개편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일주일에 120시간 바짝 일하고" 발언으로 시작된 '노동 공약 1호' 정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안 발표 전 대통령은 사전보고를 통해 내용을 인지했을텐데 여론이 싸늘해지자 재검토 지시를 한 일은 국민 소통 부족의 또 다른 국정 운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일 외교 관계 개선과 공약 이행도 좋지만 자국민과 야당과의 충분한 소통도 하지 않은채 자신의 생각이 정당인 것처럼 밀어붙이기식으로 계속 국정을 이끌어간다면 '대통령 리스크'는 국민의 우려만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14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몬테레이 카운티의 파자로 커뮤니티에 있는 침수된 코인 세탁소에서 이곳 주인 부부가 동전통의 동전을 수거하고 있다. 이들은 세탁 장비가 50만 달러짜리라며 '홍수로 모든 것을 잃었다'라고 하소연했다. 캘리포니아주 일대에 다시 강력한 대기전 현상으로 폭우가 쏟아져 약 2만7000명의 주민에게 돌발 홍수와 산사태에 대비하도록 대피령이 내려졌다. 몬테레이 카운티=AP/뉴시스

서석대

황하의 신인 하백이 강물을 따라 처음으로 북해와 동해를 보게 됐다. 바다의 크기와 넓이가 강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 하백이 놀라워하며 북해의 신인 약에게 물으니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물 안의 개구리에게 바다 이야기를 들려주어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요. 자기가 사는 곳에 구애받기 때문이 아니겠소? 마치 여름 별레가 얼음에 대해 말할 수 없으니, 안다는 건 여름 밖에 없을 테니까 말이요. 한쪽만 아는 사람은 도(道)를 알 수 없을 것이니 그건 자기가 배운 것에 속박되기 때문이요. 이제 그대는 좁은 지역을 나와 바다의 광대함을 알았으니 비로소 그대와 더불어 진리에 대해 이야기해도 좋게 되었다는 것이요."

장자 추수편에 나오는 '우물 안 개구리' (정중지와·井中之蛙) 이야기다. 우물 안에서만 사는 개구리는 하늘의 넓이나 바다의 깊이를 우물만큼의 넓이와 깊이로만 이해한다는 뜻이다.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있거나 세상물정 모르는 존재가 상식적이고 폭넓은 문제나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때 주로 쓰인다.

한국야구가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3개 대회 연속 1라운드 탈락의 수모를 겪으며 대회를 마무리했

다. 한국야구는 2009년 이후 14년 만에 4강 진출을 목표로 삼고 최고의 선수들을 선발했다. 야구대표팀에 승선한 선수들은 수억원의 연봉을 받는 선수들이 수도룩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다. 높아져 가는 선수들의 몸값과 달리 국제 무대에서 실력이 부족했다. 이번 대회에서 대부분의 한국 투수들은 자신감을 잃고 집단 제구 난조를 보이며 허둥했다. 타자들도 허명뿐이었다. 생소한 투수들에 대처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빠른 공에는 여지없이 방망이를 헛들렸다. 한때 야구 강국을 자부했던 한국 야구가 '우물 안 개구리' 신세였음을 이번 대회를 통해 다시 확인했다.

이젠 진짜 실력을 키우지 않으면 국제대회에서 더이상 명함을 내밀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았다. 이번 WBC를 통해 암울한 현실이 그대로 드러난 한국 야구는 이제 4강에 올랐던 1, 2회 WBC와 2008 베이징올림픽의 영광은 잊고, 인재 발굴과 선수 교육 및 육성 등 근본적으로 야구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 리그 우승에만 혈안이 돼 새로운 대표팀 발전 방안 수립을 등한시하고 세계야구 흐름을 보지 못한다면 한국 야구는 국제대회에서 들러리 신세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최동환 문화체육부장

全南日報	시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기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94		
	정치부	(062)510-0461	전남취재부	(062)510-0336		
	사회부	(062)510-0340	뉴스콘텐츠부	(062)510-0321		
www.jnilbo.com m.jnilbo.com	경제부	(062)510-0380	사진부	(062)510-0391		
구독료	월 1만원 1부 5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						